

건강 칼럼

소화관 종양

소화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으며, 소화와 흡수로 음식물의 영양분이나 수분을 우리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소화관에 생기는 종양을 소화관 종양이라 하며...



최영길

굿모닝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장관에서 출혈 성분이 처리되어서 변으로 나오게 되어 새까만 변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혈변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깊게 하는 궤양성 병변을 동반하는 종양을 갖는 경우도 드물지만...

▲소화관 종양

요즘 국가검진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용종이라고 알려져 있다. 용종의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폴립이다.

십이지장까지 관찰할 수 있다. 우선만 40세부터 2년 주기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 위벽은 얇긴 하지만 분리해서 보면 다섯 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시경에 미세 초음파가 장착되어 있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 기구로써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인들이 있다. 여기에서 타고난 원인들은 아니라든지 가족력, 유전성으로 발생하는 종양은 조절할 수 없는 원인들이다. 흡주, 흡연, 과도한 육류섭취, 비만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생활습관을 잘 유지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원인 인자다.

▲내시경으로 발견되는 종양

흔히 암으로 알려진 악성과 암이 아닌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성종양은 암이 아닌 종양으로 발생 위치와 형태 크기에 따라 용종, 선종, 점막하 종양으로 구분된다. 양성종양은 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크기가 2cm 이상일 때에는 제거해야 하며 이는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위나 장의 폴립은 과형성 용종이라든지 열증성 용종, 선종 등이 있고 가장 염려하는 위나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선종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위의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위 내시경 검사를 입을 통해 식도로 삽입하며, 위와

▲위 종양 원인과의 증상 크게 2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조절 가능한 원인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기자회견하는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3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램 장관이 지난주 비공개회의에서 시위의 계기가 된 송환법 추진에 대해 크게 후회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기록이 2일 공개됐다.

미국 노동절 행진하는 자동차 노조원들



2일(현지시간) 노동절을 맞은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조원(UAW)들이 행진하고 있다. 미 자동차노조(UAW)의 정식 명칭은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농업기계 노동조합(United Automobile, Aerospace and Agricultural Workers of America)이며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 작업 들어가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추진 작업에 들어가야겠다. 제3금융도시 지정은 지역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수도권에 노골적으로 편중을 겪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터이다.

분위기에 여건은 우리의 편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꼭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지방에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의 방해 공작은 전복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복을 쫓겨갈 것처럼 하던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었던 것은 매우 섭섭한 것이었다.

전북도는 용기를 내야 한다. 최종 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한 은성수 후보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오래 가는 일자리가 소망스럽다

전북도의 일자리 대책이 달라져야겠다. 오래 가는 일자리가 소망스럽다. 반짝 생겨났다가 꺼지는 일자리는 미덥지 않다. 전북도가 먼저 잘 알고 있으려나와 일자리 대책 강구야말로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다.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질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관측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nd '전주매일' logo.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